

# 배우 강태오, 10년만에 빛... “군입대 아쉽지 않냐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 전혀 예상 못해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녀와야겠다” 생각

배우 강태오(28·김윤환)는 ENA 종방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평소 좋아하는 유인식(50) PD·박은빈(30)과 호흡한다는 자체만으로 기뻛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드라마는 첫 방송 후부터 입소문을 타고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데뷔 10년 만에 주목 받았지만, 주위에선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잘 돼서 좋겠다. 근데 군 입대를 코앞에 뒤서 어떡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기대를 안 하고 ‘조용히 (군대) 가지’라고 생각했다. 이 작품을 통해 ‘어느 정도 모습을 비추고 다녀와야겠다’ 싶었는데, 더 큰 결과가 나와서 그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아쉽다고 생각하면 밀도 끝도 없다. 이번 기회에 나라의 사람을 많이 알려서 감사하고, (군대) 다녀와서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박은빈)가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남만닥터 김사부’ 시즌1·2(2016·2017·2020) 유인식 PD와 영화 ‘증인’(감독 이한·2019) 문지원 작가가 만들었다. 1회 0.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7.5%로 막을 내렸다.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3위까지 오르며 해외에서도 인기몰이했다.

강태오는 법무법인 ‘한바다’ 송무팀 직원 ‘이준호’로 분해 영우와 로맨스를 그렸다. 마지막회에서 준호는 영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양이와 집사에 빗대 표현했다. 영우는 준호의 마음을 한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 들였다. 강태오는 처음 극본을 보고 영우와 준호 관계가 “고양이를 산책 시키는 보호자 같다”고 느꼈다. 문 작가는 준호 캐릭터를 불쾌하지 않게 그리기 위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고 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영우에게 ‘난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줘’가 아니라 ‘널 옆에서, 뒤에서 지켜봐 줄게요’였다. 마치 고양이를 향한 (집사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다”며 “강아지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고양이는 워낙 자유로운 동물 아니냐.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고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느낌이 떠올랐다. 16회에서 영우가 고양이와 집사는 양방향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공감했다”고 털어놴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영우와 로맨스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PD님과 함께 ‘준호가 어떻게 영우를 좋아하게 됐을까’ 고민했다”며 “일단 ‘자폐가 있다 없다’라고 구분하는 걸 떠나 준호는 영우를 존경하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다. 크게 어렵거나 ‘어떡하지?’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역 출신인 박은빈과 호흡하며 배우 점도 많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해 경험치와 노련함이 대단했다. ‘영우 대사를 어떻게 다 소화할까?’ 싶었는데 완벽하게 준비해왔다. 현장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프로페셔널했다”면서 “준호와 케미도 신경쓰고,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고 조언도 해줬다”며 고마워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영우의 고백신을 꼽았다. 7회에서 영우가 “이준호씨를 만질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재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준호는 “그럴 것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 섭섭한데요”라고 했다. 강태오가 ‘국민 섭섭남’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 대사가 이슈 될 줄은 몰랐다”면서 “영우에게 섭섭하다고 표현했지만, (국민 섭섭남이라는 애칭은) 섭섭하게 안 들려서 좋다”고 미소 지었다. “연기할 때는 섭섭하기 보다 설렜다”며 “평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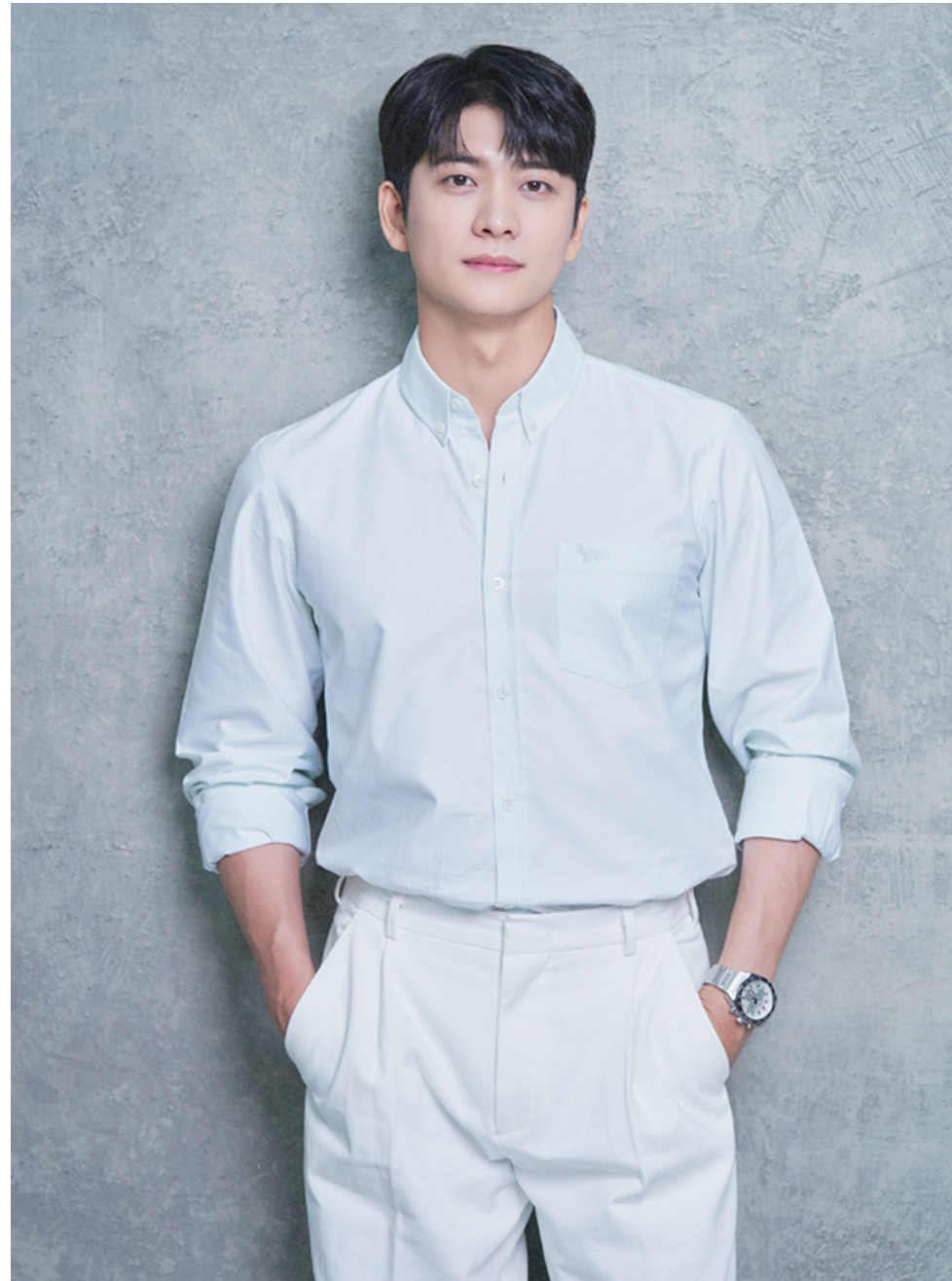
준호가 영우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표현하지 못했다. 영우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준호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었을텐데, ‘섭섭한데요’라고 한 건 영우 고백에 관한 또 다른 대답이었다. 그 대사를 섭섭하게 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오는 이 드라마를 통해 대세 스타로 거듭났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광고 러브콜이 쏟아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아쉬움이 큰 작품이라고 꼽았다. “많은 분들이 준호를 좋아해줘서 감사한데, 연기자로서 강태오가 준호를 보여줌에 있어서 아쉬운 게 많다. 촬영 마지막까지 PD님께 ‘준호가 어렵고 낯설다’고 했다. 재도전하고 싶은 역을 꼽으라면 ‘준호’라며 “준호를 연기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다시 한다면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아쉽고 욕심이 난다”고 했다.

강태오는 2013년 배우그룹 ‘서프라이즈’로 데뷔해 늦게 빛을 발했다. 서강준(29·이승환)을 비롯해 공명(28·김동현), 이태환(27) 등 멤버들이 데뷔 초부터 주목 받아 조급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다. 난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추구하는데, (멤버들이) 부럽기는 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줄 때 나도 플렉스하고 싶은데 얻어 먹으니까, 돈 없는데 내가 사줄게”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웃었다.

서프라이즈 멤버들은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다. “얼마 전 공명이 휴가 나와서 얼굴을 봤다. 군대에 있는 태환이한테도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서로 응원하는 게 좋다. 한편으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면 독특한 동료가 없었을텐데 싶다. 앞으로 죽이 일 해나가면서 처음 부딪치는 것도 있고, 이미 경험한 친구에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의지할 것”이라고 했다.

강태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재발견됐다. ‘쇼트’(2018) ‘첫사랑은 처음이라



시 시즌1·2(2019) ‘조선로코-녹두전’(2019) ‘런온’(2020·2021) 등 필모그래피를 다시 찾아보는 팬들도 많다. “앞으로 너 더 잘해야 돼”라고 격려심을 심어주는 것 같다. 이번 작품도 잘 했지만,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스스로 재충전하게 된다. 정말 생

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방송하는 8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매주 기대되고 설렜다. 잠시 쉬었다 오지만 끝까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군대) 다녀와서 더 쉼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 많이 기대해달라. 더 열심히 하겠다.”

## 블랙핑크, 스포티파이 톱송 글로벌차트 2일 연속 1위...韓 가수 처음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 글로벌 열풍

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한국 가수 노래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서 전날 하루 동안 671만743회 스트리밍된 것으로 집계됐다.

발매 첫날 수치(793만 7036회)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올해 나온 전 세계 여성 뮤지션의 어떤 음원보다 많은 스트리밍 횟수라고 YG는 전했다.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한 K팝은 그동안 없었다. YG는 “블랙핑크의 본격적인 무대 활동은 아직 시작

되지도 않은데다 내달 16일 이들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이 나오는 점을 떠올리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스포티파이는 184개국 4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집계에 반영되는 플랫폼 중 하나라 파급력이 크다.

빌보드는 앞서 ‘핑크 베놈’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조망하며 “블랙핑크가 ‘본 핑크’ 프로젝트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전 세계 팝 음악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블랙핑크가 어떠한 글로벌 신기록을 써내려갈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핑크 베놈’은 강력한 비트와 어우러진 우리나라 전통 악기 사운드로 시작하는 힙합이다. 양대 팝 시장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아이튠즈 전 세계 74개국 1위에 오르며, 2일째 월드



와이드 송 차트 정상을 점령했다. 또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의 각종 세부 차트를 싹쓸이했다.

유튜브에서 역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약 29시간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 같은 조회수에 도달한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 중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90개 지역 유튜브 트렌딩 정상을 올라 월드와이드 랭킹 1위 자리를 3일째 지키고 있다.

## 이정재·정우성 ‘헌트’ 300만명 돌파

영화 ‘헌트’가 개봉 2주차 주말에 7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누적 3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12일만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헌트’는 19~21일 전국 1579개관에서 1만9513회 상영, 71만 4749명이 봐 누적 관객수 304만2161명을 기록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3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헌트’ 포함 5편이다. ‘범죄도시2’(1269만명), ‘탐간:매버릭’(786만명), ‘한산:용의 출현’(671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등이다.

‘헌트’는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다. 이정재가 각본도 썼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안기부에 잠입한 간첩 ‘동림’을 잡기 위해 두 요원이 나서고, 이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안기부 요원 ‘박평호’를, 정우성이 또 다른 요원 ‘김정태’를 연기했다. 이밖에 전혜진·하성태 등이 출연했다.



‘한산:용의 출현’은 같은 기간 34만3513명(박스오피스 29)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가 671만1673명이 됐다. 이같은 흥행 추세라면 돌아오는 주말에 700만 관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놈’(15만 7968명·누적 25만명), 4위 ‘탐간:매버릭’(9만 6694명·누적 786만명), 5위 ‘비상선언’(6만72명·누적 202만명) 순이었다.

## 뉴진스, ‘어텐션’으로 음악방송 4관왕...“행복한 시간”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음악방송 4관왕

나흘 연속 트로피 들어 올림

에 올랐다.

22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곡 ‘어텐션(Attention)’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18일 ‘앳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9일 KBS2 ‘뮤직뱅크’, 20일 MBC ‘쇼! 음악중심’, 21일 SBS ‘인기가요’까지 나흘 연속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4관왕이 됐다.

뉴진스는 이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하다 팬분들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뉴진스 되겠다 지켜봐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속사를 통해서 ‘데뷔 앨범 활동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노래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의 데뷔앨범 ‘뉴 진스(New Jeans)’는 음원 발표 4주차에도 호성적을 내는 중이다. 첫 번째 타이틀곡 ‘어텐션’은 음원사이트 멜론 일간 차트에서 10일 연속 1위를 기록 중이고, 바이브 ‘오늘 톱 100’ 차트에서는 12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또, 이 곡은 지난 20일 글로벌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 128위에 오르면서 열흘째 차트인했고, 두 번째 타이틀곡 ‘하이프 보이(Hype Boy)’는 177위에 자리했다. 특히 ‘어텐션’은 3주 연속 한국 스포티파이 ‘주간 톱 송’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 ‘드래곤볼’...美 첫주말 박스오피스 1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볼 슈퍼:슈퍼 히어로’가 미국 개봉 첫 주말에 브래드 피트의 ‘블릿 트레인’을 밀어내고 미국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드래곤볼 슈퍼:슈퍼 히어로’는 19~21일 전미 3018개관에서 2010만 달러를 벌어들여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영화 개봉 첫 주말 성적은 전작인 ‘드래곤볼 슈퍼:브롤리’(2018)의 980만 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이다. 이번 작품은 레드 리본군이 만든 인조인간 ‘감마호’와 ‘감마2호’에 맞서는 손오공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2위는 ‘드래곤볼 슈퍼:슈퍼 히어로’와 같은 날 개봉한 ‘비스트’였다. ‘비스트’는 1157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 영화는 아버지와 두 딸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자와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이드리스 엘바가 주연을 맡았다.

이밖에 주말 미국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블릿 트레인’(800만 달러·누적 6900만 달러), 4위 ‘탐간:매버릭’(585만 달러·누적 6억8300만 달러), 5위 ‘DC 리그 오브 슈퍼-팻’(577만 달러·누적 6750만 달러) 순이었다.